

2020년 올해 KHiO 외부 광장에는 조금 색다른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Evergreen Corona 는 미국 현대 조각가 Kenneth Snelson (1927-2016) 의 작품에서 사용한 건축 원리를 이용한 작품입니다.

그의 작품에 부여한 제목은 심플하고 평범해서 때로는 공간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KHiO 외부광장 앞 계단은 공공 장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기존 방식과 다른 올해 크리스마스 트리는 교내 모델 / 프로토타입 워크샵의 워크샵 마스터 Nicolai Fontain 의 아이디어이자 발안입니다.

조각품은 6개의 녹색 원목 목재로 구성됩니다. 이는 학교내의 학부의 개수와 동일합니다. 오페라 학부, 순수예술 학부, 디자인 학부, 무용 학부, 공예부, 연극부.

단단한 원목 막대는 와이어로 연결되어 목재의 수축 팽창을 유지시켜 줍니다.

작품 제목 “Evergreen Corona” 는 침엽수의 왕관을 의미합니다.

자연, 교내의 환경 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인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 학교는 조금은 친환경적 이였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항상 0 에서 부터 시작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 어떤 주제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열려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왔고 #METOO, 코로나, Black Lives Matter 라는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2017년 미국 Evergreen College 반란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남겨줬습니다.

고정된 커리큘럼 경로가 아닌 교육과 학습의 개별적인 경로로 발발되어진 그 반란의 문제는 구조적인 인종 차별이었습니다.

학교 내부와 외부 구조와 마찬가지로 외부에서든 내부에서든 처음에는 식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사건이 발생되고 그 여파가 미치는 동안 사건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올해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지속 가능한 구조물로 만들기위해 견고하고 유연한 요소 사이의 긴장감을 사용한다는

이 아이디어는 모든 요소들 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텐세그리티 라고 정의 할수 있습니다. (인장력을 이용하여 구조적 안정을 얻는 구조)

온전함의 진정한 아이디어는

표편의 자유와 유행병 기간의 제제속에서 새롭게 발전되어진 형태의 접촉 방식간의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배움과 존경의 시간을 기원합니다.